

AI 시대, 사회과 교과서는 설렘을 줄 수 있는가



정태호
수원영덕초등학교
수석교사

1. 새로운 책에 대한 기대와 설렘

내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책은 '삼국지'였다. 처음에는 세 권짜리로 된 간단한 '삼국지'를 읽었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10권짜리 전집을 구매했다. 그리고 그 10권짜리 '삼국지'가 우리 집에 왔을 때의 기쁨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얼마나 좋았는지 밥을 먹으면서도 보고, 화장실에 가서도 보고, 그렇게 보다가 다 읽으면 처음부터 다시 보기를 수차례나 했다. 그 이후 재밌었던 소설책 시리즈나 즐겨보던 만화의 다음 권이 나왔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이렇게 보고 싶었던 책을 가졌을 때의 기대와 설렘을 누구나 한번씩은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2. 새로운 교과서에 대한 관망

그렇다면 새로운 교과서를 받았을 때에도 기대와 설렘을 느낀 교사가 있을까? 교육과정 개정으로 새로 발간된 교과서를 받았을 때 설렘을 느끼는

교사는 거의 없을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중 교과별 교육과정이 어떻게, 왜 변했는지에 대한 관심도 적거니와, 교과서 속에 개정된 교육과정의 어떤 의도를 어떻게 담아냈는지는 더더욱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저 수업에 활용할 때 좋기만 하면 된다. 또한, 교과서를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결국,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교과서가 바뀌어도 현장 교사들은 적극적인 기대를 하기보다 소극적인 관망에 가까운 반응을 보인다.

2026년은 교육부가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전 학년에 전면 적용되는 첫 해다.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역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추어 새롭게 개발되어 전 학년에 적용된다.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삶의 주도성’,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 ‘언어·수리·디지털 기초소양’ 등이 강조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적 요구와 교과교육학의 학문적 요구, 학습자의 요구는 실제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

가. 팬데믹의 종료와 맞물린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적용 시점

지난 교육 경력을 돌이켜보면 신규 때에는 교과서를 성전으로 여겼다. 그래서 당시 국어, 국어활동, 수학, 수학익힘, 사회, 사회과탐구, 사회과부도, 도덕, 생활의 길잡이 등 교과별로 주어진 교과서는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쳤다. 그래야 하는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르고 경력도 쌓이며 교과교육에 대한 공부를 하다보니 교과서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갔다. 교과서의 내용 중 더 집중해서 가르칠 것과 삭제할 것을 구분해가며 하나의 자료로 여기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른 뒤에는 국어와 수학을 제외하고는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 중 필요한 내용은 내가 만든 PPT에 보조 자료로 넣고, 수업 시간에는 교과서 없이 내가 준비한 자료로만 수업을 했다.

이러던 나를 완전히 바꾼 사건은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었다. 팬데믹 시기에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학생과 대면 수업을 할 수 없고, 수업 자료조차 전해주기 어려울 때 교과서만큼 좋은 자료는 없었다. 온갖 학습 준비물을 챙겨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나눠주던 시기에 교과서는 최고의 학습 자료였던 것이다. 그렇게 교과서는 그 어느 자료보다 정확한 ‘학습의 기준점’이자 ‘안전한 자료’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다 보니 전면 등교로 전환될 때까지는 교과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가 적용되는 시점과 비슷한 전면 등교 기간 이후에는 교과서의 활용 양상이 다소 달라졌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교과서의 직접 활용 빈도가 다시 낮아진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과 수업에서는 중요한 개념 설명이나 부록의 만들기 정도만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본문의 텍스트나 사진, 그림 등의 자료는 교사가 직접 멀티미디어 자료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교과서의 내용이 지나치게 일반적이거나, 우리 학급 학생들의 성향이나 수업의 맥락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우리 반 학생들과 가까운 자료를 찾고, 우리 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만한 활동을 준비하면서 교과서 활용 빈도는 점점 낮아졌다.

또 다른 변화는 교과서 ‘재구성’이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 시기에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수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학생들과 대면 수업을 하면서 교과 내 순서의 변경이나 타교과의 융합을 통해 교과서를 재구성하여 수업을 하게 되었다. 특히, 사회과의 통일, 지구촌 등의 내용은 도덕과와 연계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두 교과를 통합하여 수업을 한 경우도 많았다. 즉, 교과서의 차시 구조를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통합하거나 순서를 변경하는 방식을 활용하며 교과서의 교과 간 경계를 낮춘 것이다.

마지막 변화는 팬데믹을 거치며 폭발적으로 증가한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하게 된 것이다. 특히, 평가와의 연계 측면에서 에듀테크의 적극적인 활용은 교과서 활용 빈도를 더욱 낮게 만들었다. 교과서의 활동지보다는 내 수업에 기반한 루브릭을 설계하고 과제나 평가 문항을 에듀테크로 제시하거나 제출하기 때문에 굳이 교과서 내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없어졌다. 결과적으로 교과서는 ‘수업을 위한 중심 교재’라기보다 ‘참고 자료’ 또는 ‘공식적 근거 자료’로만 활용을 하게 되었다.

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과 교과서의 활용 경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과 교과서는 2025학년도에 3~4학년군에서 처음 활용하였다. 새로운 교과서는 이전 교과서와는 다른 몇 가지 변화가 분명히 확인된다.

교과서 전반에 걸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QR코드를 활용한 디지털 연계 자료의 확대다. 교과서 곳곳에 삽입된 QR코드는 교과서에는 담을 수 없는 영상 자료를 제시하거나, 지면의 한계로 제시하지 못한 추가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또, 디지털 기반 체험 콘텐츠로 연결되어 온라인 학습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평가지나 사이트로 이동하여 평가에 활용되기도 한다. 이는 디지털 기반 학습 환경에 대응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QR코드의 활용은 기존의 실물 교과서에서 나타났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개별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림 1 — 아이스크림(3-1) p.87



그림 2 — 천재교육(3-1) p.63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실제 수업에서 QR코드를 많이 활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3학년에게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수업이 그리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마트기기를 매시간 교과서와 함께 기본적으로 준비하기에는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 많았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하자니 번거로웠다. 출판사 사이트에서 교사가 직접 일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다.

차라리 매시간 QR코드를 활용한 퀴즈 등이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면 습관처럼 자주 사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좋은 자료가 탑재된 디지털 자료

가 아니라면 수업 시간에 굳이 아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스마트기기를 꺼내 QR 코드를 찍으라고 하지 않았다. 요약하자면, 교과서는 분명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전 교육과정의 교과서에 비해 혁신적이거나 현장 중심적이라고 느끼지는 못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를 크게 느낀 또 다른 하나는 성취기준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새로운 단원이다. 특히, 3학년에 제시된 아래의 두 가지 성취기준은 기존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성취기준이 변형된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롭게 신설된 성취기준으로 이 성취기준에 따라 소단원 두 개가 신설되었다.

표 1 —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일부

[4사02-01] 일상 속에서 시간의 흐름을 경험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의 시간 개념을 이해한다.
[4사02-02] 오래된 물건이나 자료들을 주변에서 찾아보고, 이를 통해 과거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음을 이해한다.

※ 출처: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별책 7] p.20

개인적으로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이 단원의 수업은 실제 수업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수업으로 진행됐다. [4사02-01] 성취기준에서는 아이들의 경험에서부터 시작하여 역사교육을 가볍게 시작하는 단원이라 학생들이 흔히 생각하는 지루한 역사가 아닌 살아있는 역사 수업이 이루어졌다. 자기의 옛날 사진을 가져와서 친구들과 함께 옛날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그렇게 즐거워 보일 수 없었다. 수학 시간에 분수를 배우며 힘들어했던 아이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4사02-02] 단원은 교사도 재미있는 단원이었다. 너무 먼 옛날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교사가 어릴 때 직접 경험한 내용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실감 나게 설명할 수 있었고, 실제 실물을 구하기도 쉬웠다. 선생님이 어릴 적 사용했던 물건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보며 신기해하고 질문을 하며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을 보며 꽤 재미있는 단원이 생겼다고 생각했다.



그림 3 — 미래엔(3-1) p.67



그림 4 — 동아출판(3-1) p.103

그러나,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이 단원의 핵심은 ‘나의 경험도 역사가 될 수 있다’ 라는 명제에서 출발해 역사를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역사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호기심과 함께 역사적 사고력의 기초를 마련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단원 중반부터 갑자기 등장하는 아주 오래된 역사적 사실은 학생들의 흥미를 떨어뜨렸다.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했을까? 교과서 집필진과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역사 단원인데, 이런 내용 정도는 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역사를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면 아이들이 흥미를 잃고, 역사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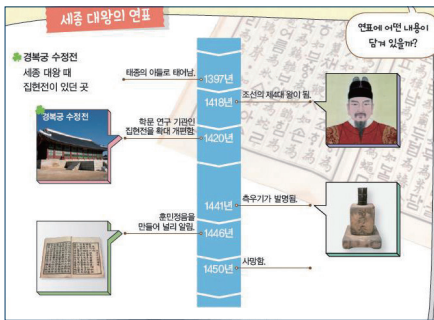


그림 5 — 천재교육(3-1) p.78



그림 6 — 미래엔(3-1) p.72

다. 새로운 교과서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반응

지금까지 교과서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두드러진 변화와 새롭게 신설된 특

정 단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 대한 교사들의 전반적인 반응을 한 단어로 나타내면 ‘관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냉소라기보다는 현실적인 평가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은 바뀌었지만, 수업의 본질은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핵심역량 중심 수업, 프로젝트 학습, 토의·토론 수업 등은 이미 현장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었다.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디지털 수업 역시 이루어지고 있었다.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이를 제도적으로 반영했을 뿐, 혁신적 전환으로 체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 입장에서 새롭게 개발된 교과서에는 기대를 걸기보다 멀쩡이 떨어져 관망하게 된다.

3. AI 시대 교과서의 미래


그렇다면 앞으로 교과서는 어떤 형태로 변화할 것인가. 디지털 기반 학습 환경의 확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교과서의 형태 자체를 재정의하고 있다. 2022년 출시된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는 이후 인간의 삶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왔다. ChatGPT라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출현으로 인해 삶의 방식 자체가 변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후 불과 1~2년 사이에 ‘지브리풍 그림’이 유행할 정도로 생성형 AI가 사람들의 일상에 넘쳐나게 되었고, 곧바로 퍼지컬 AI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즉, AI의 활용이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 변화의 속도가 혁신적으로 빨라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과서는 어떻게 될까?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은 교과서가 단순한 텍스트를 넘어, 상호작용형 플랫폼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AI 교과서는 단순한 상호작용형 콘텐츠를 넘어, PPT 제작, 영상 편집, 작곡 등 다양한 창작 활동을 수행하는 통합 디지털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이고, 나아가 교과서의 형태마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형태로 바뀌게 될 것이다.

또한, 과거에는 교과서의 질, 편집, 삽화, 출판 등의 전문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교사들과 출판사가 협업으로 교과서를 만들었다면, 이제 교사 개인이 교과서를 만

들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다. 초등 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추세라면 몇 년 안에 학교 단위에서 교과서를 만들다가 바로 교사 단위 교과서로 바뀔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국정-검정-인정으로 이어지는 교과서 제도와의 충돌로 혼란을 겪을 수도 있고, 교과서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는 어떤 교과서가 좋은 교과서인가? 정답은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책은 독자를 설레게 한다. 교과서 역시 설렘을 줘야 한다. 그것은 단지 디자인이나 디지털 기능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 현장의 맥락을 얼마나 깊이 반영하고, 교사의 전문적 판단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달려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는 분명 변화의 신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속도와 강도가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변화가 실제 수업 속에서 교사와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재미있으면서도 꼭 필요한 내용과 기능을 담고 있는 현장 중심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시대에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정답이 교육이라면, 그 교육의 핵심 자료가 교과서라면, 그 교과서가 '기대되는 책'이 되기 위해, 우리는 기술보다 본질을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필자 소개

새내기 수석교사이다. 나와 만난 아이들과 동료 교사 모두 행복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역할을 찾고 있다.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위해 나의 노력이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비상은 믿습니다

당연한 것을 낯설게 바라보는 시선이
교육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을.

현장에서 출발한 고민이
다음 교육의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움의 즐거움이
교육의 가장 강력한 연료라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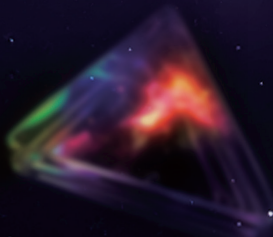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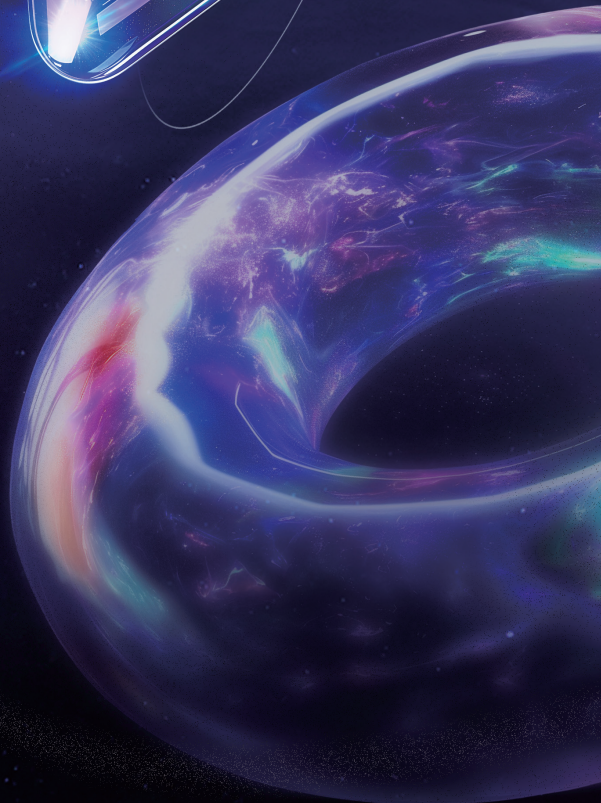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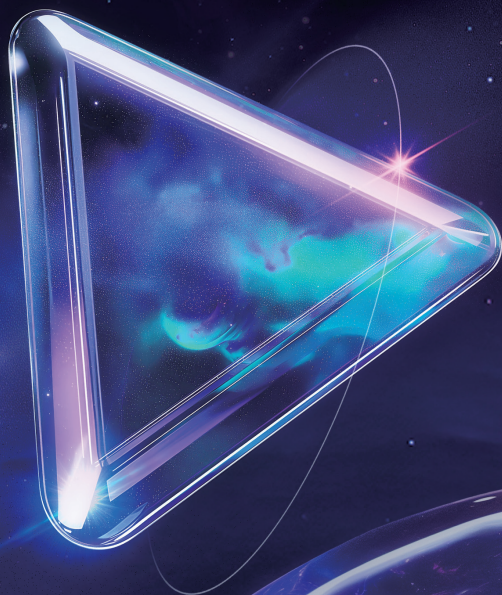
다름을 존중하는 태도가
교육의 가치를 더 깊게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이 가치들이
곧, 우리 교육의 방향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 하나하나가 모여,
새로운 콘텐츠와 플랫폼이 되어
교육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갑니다.

상상 그 이상 -

visang



선생님의 올바른 가치와
참된 가르침처럼
78년 간 교과서를 만들어
온 사명으로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교과서 발행부수 1위 기업, (주)미래엔

*2025년 교과서 발행 부수 기준

MiraeN



미래엔 교수지원플랫폼 엔티치
www.m-teacher.co.kr

